일 주 문

광주교도소 교화위 회장에

前 광주사암연합회 회장 현지 스님은 지난 12월 28일 광주불교회관에서 열린 광주교도소 불교교화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원주불교 신년하례식 개최

원주불교사암연합회장 원행 스님은 1월 5일 원주웨딩홀에서 국가 사회안정과 경제난 극복을 기원하는 을유년 원주불교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가산불교연구원에 지원금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은 1월 3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에 불교대사전 편찬지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승가원에 복지타운 기금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부인 홍문자 씨는 1월 4일 승가원(이사장 종범)을 방문해 자비복지타운 건립 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한복차림 토종가수 고수해야죠"

'제1회 자랑스런 명인' 표창 불자가수 송춘희 씨

"가수생활 49년간 한복을 고집한 덕분에 후한 점수를 받은 것 같네요."

최근 '우리 것 보존협회(대표 홍성덕)'가 수여하는 '제1회 자랑스런 명인' 표창을 받은 가수 송춘희(66 · 사진)씨. 송씨는 공개석상에서 무조건 한복만을 고집하는데다 단 한번의 외국곡조차 부른 적이 없는 '토종 가수'다. 민요 가수도 지키기 어려운 원칙을 반백년간 올곧게 지켜왔다.

군부대, 교도소를 돌며 '노래하는 포교사'로 불음을 전파해온 송씨는 "불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 역시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불교음악가 박범훈 교수 중앙대 총장 당선

"화음 잘 맞추는 지휘자 될 터"

지난 12월 24일 중앙대 제12대 총장선거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국악 작곡가인 박범훈 부총장(56 · 사진)이 총장에 당선된 것이다. 전문 음악대학이 아닌 일반 종합대학에서 전문음악가가 총장에 당선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단연 화제가 됐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지요.

-무거운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학교 총장 역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별로 이루어진 각 악기들을 잘 점검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것이 지휘자의 역할이지요. 총장도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이 조화를 이루어 불협화음이 안 나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도록 도와주는 야전 사령관인 셈입니다.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계획을 알려주시지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상반기에 있을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기존처럼 상위권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취업과 직결되는 문제라 신중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2월 3일 취임하지만 열심히 학교에 나와 관계자들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음악인들은 은근히 유능한 불교음악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앙대만큼 불교음악 인재를 많이 배출해 내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중앙대는 기독교 학교인데도 말입니다. 특히 중앙대는 국악대학 내 타악연희과 등이 있어 영산재 전문 스님들을 모셔다 강의를 시키는 등 종립대학보다도 불교예술을 위한 커리큘럼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대학교육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범종단적으로 불교문화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장학 제도와 같은 후원을 많이 늘려야 할 때입니다.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재들이 기독교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불교 공연을 한 번 하려해도 기독교 쪽 학생들에게 의뢰해야 하는 것이 불교음악계의 현실입니다. 사찰 합창단을 중심으로 음악대학 출신의 젊은 음악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며 인재들을 양성해야 불교음악의 맥이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음악 활동 계획은?

-총장이 되면 음악활동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음악회를 해도 중앙대의 타이틀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나눔운동으로 지역 화합 견인

밀양불교사암련 새 회장 덕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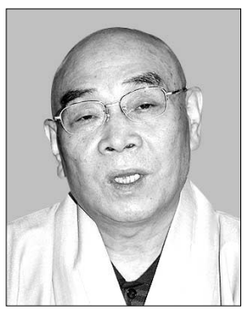
"사명대사의 숭고한 얼이 살아있는 밀양은 불교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밀양불교 발전의 큰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한 덕해 스님(삼양사 주지 · 사진)은 이렇게 각오를 밝혔다. "어려운 이웃에 부처님의 따스한 자비심을 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거듭 강조한 스님은 밀양불교의 세 가지 과제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이타행, 불교발전을 위한 내적 재정비와 화합, 개인적인 수행을 꼽았다. 스님은 향후 경찰불자회 창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인재양성 사업 확대

탄허불교문화재단 새 이사장 혜거 스님



"지난 20여년간 탄허불교문화재단의 사업들은 탄허 스님의 업적을 선양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탄허 스님이 유지를 받드는 구체적 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사진)이 지난 12월 29일 열린 (재)탄허불교문화재단 정기이사회에서 제5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혜거 스님은 "그동안 정기 학술행사 개최와 장학 사업, 불교문화사업 등을 꾸준히 펼쳐오면서 재단이 안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탄허 스님이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혜거 스님은 "사부대중이 한데 모여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 탄허 스님의 유품을 한데 모은 기념관 건립, 외국인들에게 탄허 스님의 선사상을 지도할 국제선원 개원 등 실질적 사업들을 펼쳐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대한불교법화종 신년하례법회

대한불교 법화종(총무원장 직무대행 혜륜)은 1월 6일 경주 황실예식장에서 불기 2549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종정 운명 스님은 "동남아 지진해일 피해로 고통받는 무주 영가의 천도와 피해복구를 위해 전 종도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선불교조계종 신년하례법회

한국선불교조계종(총무원장 각원)은 1월 6일 경주 무진암에서 신년하례법회 및 총무원 시무식을 봉행했다.

이날 한국선불교 조계종은 사무총장에 효주, 교육원장에 관선 스님을 임명했다. 종정 지우 스님은 "새해에는 철저한 수행 가풍을 확립하자"고 당부했다.

대구 도광사 개금불사 및 점안법회

대구 대명동 도광사(주지 법성)는 12월 1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동봉 스님, 종회의장 지공 스님, 이신학 남구청장, 황정구 구의원 등을 비롯 신도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해 스님을 증명법사로 도광사 개금불사 및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053)653-8583

전국에 계시는 대사 · 현인 · 기사 · 이인 각위께

제가 「六壬」하나 들고 세상에 나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 육임래정비법 」** ① 2십5만원짜리부터 ② 3십5만원짜리 ③ 1백3십만원짜리 ④ 1백5십만원짜리 ⑤ 2백5십만원짜리를 써서 교환해 드린 기간도 5년입니다.

제가 책을 쓴다고 알려 드리면, 저를 신뢰 하시고 큰 돈을 미리 선 입금하신 다음 책이 나올 때까지 넉넉하게 기다려 주신 그 큰 공덕에 힘입어 저의 소명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 육임래정비법 」** 시리즈 마지막 판**「육임대계전서」**를 60갑자 **60권**으로 써서 **매일 일진별로 1권씩 꺼내 보겠끔** 만들었습니다. 책 크기는 교과서만 하게 줄이고, 흰 바탕에 검정 활자체로 큼직큼직하게 처리해 기존의 책들보다 시원스럽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물어오는 항목을 30개로 늘리고, 이 30개 각 항목마다 세부적인 소항 목을 17개~3개씩 부연시켜, 좋다는 육임, 어렵다는 육임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 막힘없이 확실한 말씀이 되도록,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존의 불편한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 시켰습니다.

아주 쉽게 잘 나왔습니다. 또한 **「귀신침범」, 「빌미 · 부정」, 「산소탈」을 명시**하고 **그 비방법을 자세하고 명쾌히 적시**해 놓아 「효과 있다 택일하라」,「효과 없다 기다리라」고 써놓은 것만 보면 어떤 수법을 행해도 안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선입금**하신 분들께는 지난 1. 12일까지 3차에 걸쳐 배본을 끝냈고,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적색)」 교환신청**도 마감하여 발송해 드렸습니다. **한정본 500질 (1질 60권)만 발간했습니다.**

제가 쓴 책의 정확도를 믿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평생의 반려」가 될 이 보서**를 크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효사활인천역집II」CD 역시 명품으로 나왔습니다. 컴퓨터를 기본만 하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육임대계전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육임활용서를 못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방대학원대학교의 초빙교수로써 석 · 박사 과정, 연구과정, 문화교육원과정의 육임강의를 맡아 육임학(역학)의 제도권 연착륙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1월 20일 전까지 입금**하시는 분께는 입금 순서대로 전국 어디든 「한진택배」로 주문 다음날 까지 도착시켜 드리겠습니다. **鼓卜子 曉 史 배상**

● **문의전화 :** 02)993-8680 (담당 : 이명옥) ● **가 격 : 400만원 (카드결재 · 홈페이지 전자결재도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견본열람 :** www.taotemple.net (한국육임학회) 「 서적 · 비디오 · CD 」란을 클릭 하십시오.

"시중포교의 지혜로운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득도후 평생 법 공부만 열렬했던 소승이 시정(市井) 포교 인연을 맺다보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제반 애로가 쌓여 고심하던 차, 「육임대계전서」와 「효사활인천역집II」 CD를 큰맘 먹고 구입했는데, 과연 듣던 대로 효과가 커서 포교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학을 전혀 몰랐던 소승이, 이 책과 CD와 인연이 된 뒤로 신도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귀의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은, 시중포교의 애로를 겪는 분만이 아는 절실한 문제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소승이 이「명품」을 굳이 소개 하는 것은, 저처럼 市中포교의 현장에서 어려운 경험에 당황하고 계실지 모르는 寺門들께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져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특히 무슨일로 왔는지? 어떤 사정인지? 무슨 귀신침범인지? 부정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 산소탈인지? 천도시식의 효과가 있는지, 없겠는지? 그 해소법까지 자세하고 영험하게 적혀 있어 가히 백미 이더군요.

참 좋습니다.

생소한 것들을 암기할랴, 시간낼랴, 대중과 섞여 일반공부, 특히 역학을 공부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감안할 때, 이 「책」과 「CD」는 오히려 절약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아주 시원한 방편입니다!

나무지장보살

은 천 사 주지 象山 합장

011-341-7540

책 중 각 일별 각 시간별 각 국수에 적시된 30개 정단항목의 부연항목 일부 내용

■ 본 초사(初辭) : 가장 먼저 할 적중되는 말은?	
이사부터 하시지요. 살집이 못 됩니다. 관재 · 소송이 발생하겠어! 남 : 타인의 부인을 내 마누라처럼 쓰고 있네? 여 : 고진감래(苦盡甘來)야!	
■ 본 래정(來情) :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낮 시간 판단	나 자신과 형제의 근심 · 걱정건 이다.
●밤 시간 판단	나 자신과 형제의 근심 · 걱정건 이다.

▮초사

一사업사		
	① 어떤 사업이 좋은가? 여부	土, 인수 이다.
	② 신규사업(계획) 성패 여부	반은 성공한다.
	③ 사업진행과정 길흉 여부	어려운 상태이나 이겨낸다.
	④ 거래(관계)인 이해득실 여부	이득이 없다.
	⑤ 거래(관계)인 가정사 파악 여부	낮 : 분쟁 이다. 밤 : 분쟁 이다.
	⑥ 난사 교섭 성부 여부	어렵다.
	⑦ 교섭사 전후 난이 방침 여부	참고 기다리라.
	⑧ 공사 진행 차질 대비 지침 여부	관계에 대비하라.
	⑨ 영업장 설치 성쇠 여부	불가하다.
	⑩ 사업(업무) 진퇴걸심 여부	물러서라.
	⑪ 계획사 늦고 빠른지 여부	늦다.
	⑫ 공적 · 사적 추진 길흉 여부	보류하라.
	⑬ 투자 득실 여부	중지하라.
	⑭ 회의(안건)반대자 유무 여부	반대자의 세가 강하나 무방하다.
	⑮ 중요상담 승부 요령 여부	남서방을 등지라.
	⑯ 행사예정일 청 · 우 여부	흐리고 비 이다.
	⑰ 개업 · 고사 · 행사일 택일 여부	축(丑) 일을 택하라.

▮사업사

五소송승패사		
	① 소송 승패 여부	원고가 승소한다. 고난이 있다. 화해가 길하다.
	② 구속 · 불구속 여부	구속되지 않는다.
	③ 처벌 · 무혐의 여부	혐의가 없다.
	④ 중죄 · 경죄 여부	경하다.
	⑤ 도망 길 방위는?	丑 방향, 북북동쪽 이다.

▮소송 승패사

十五질병사		
	① 무슨 질병인가?	심장, 위장계 이다.
	② 질병발단 이유?	귀신 침해 이다.
	③ 치료가능 여부	낫는다.
	④ 치료 길방위 지정 여부	辰 방위로 가라.
	⑤ 효과있는 치료방법 여부	정성 기도하라.
	⑥ 교통사고 생사 예측 여부	산다.

▮질병사

▮전60권 매일 1권씩